"주차장 장사냐" 무인 정산제 "고객 안전이냐"

이마트 광산점·농협 등 광주 주요 사업장 도입
소비자 볼멘소리 속 지자체 등 유료화 잇단 추진

광주지역 주요 사업장들이 최근 들어 부설주차장 무인 정산제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고객 편의와 안전을 위해 유료화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지만 이용자들은 "주차장 장사를 하고 있다"는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13일 이마트에 따르면 광산점은 지난 1일부터 4개층 규모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하고 있다.

주차료는 이용시간 30분까지 무료이며, 10분당 1000원씩 부과된다. 이마트는 구매금액별로 할인금액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1만원 이상 물품을 구매할 시 1시간, 3만원 이상은 2시간, 5만원 이상은 3시간, 10만원 이상은 총 4시간 무료 주차 이용이 가능하다. 일정 시간을 주차하더라도 그에 따른 구매금액이 상응하지 않으면 주차료가 부과된다. 마트 이용객이 아니면 1시간 6000원, 1일 5만원 요금을 내고 이용할 수 있다.

이마트는 전국 총 142개 지점의 3분의 1꼴로 주차요금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유료 운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마트 개장 시각인 오전 10시 전부터 인근 상가 직원들이 주차공간을 점유해 장기주차를 하는 경우가 잦다"며 "매장을 실제 이용하는 고객 편의와 안전을 위해 유료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마트 광산점 주차장을 이용한 김순영(53)씨는 "마트 이용 고객 위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는 이해한다"며 "다만 신용카드로만 결제할 수 있어 불편했다"고 말했다.

부설주차장에 무인 정산제를 도입한 사례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농협 광주지역본부는 지난 9월 무인 정산 시스템을 도입하며 업무 외 시간과 주말에 개방했던 주차장을 유료화했다.

동구 장동 KT광주지사와 메가박스 첨단점 부설주차장도 최근 무인 정산화됐다.

농협 관계자는 "건물 인근에 대형 주상복합이 들어서는 등 교통난이 예상돼 주차장 유료화를 확대했다"며 "기존 주차요금 정산 인력에게는 경비 업무를 맡겨 고용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등 주무부처는 지난해부터 지자체 주차장 등 공유자원 개방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을 내세웠지만, 일부 사유 건축물 부설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은 관리가 편한 무인 정산화를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가 지난해 7월 공개한 '공유자원 현황조사'에 따르면 광주지역 주차장 개방 시설수는 118개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5번째를 기록했다.

올해 8월 기준 광주·전남지역 자동차등록대수는 지난해 167만대에서 4만2000대 늘어난 172만대(광주 67만·전남104만대)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내년 상반기에 공영주차장에 대한 요금을 30% 이상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에는 1만550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488개 공영주차장이 있다. 광주서구청 부설주차장은 지난 1일부터 차량 자동인식 시스템을 도입하며 본격적으로 유료화를 시행했으며, 광주시청도 주변 상권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어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 상공인들 산업 간 융·복합 방향 모색

4차 산업혁명 커뮤니티 간담회

광주지역 상공인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자 머리를 맞댔다. 금형·철강·건설·의료·공기산업 등 관련 기업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산업 간 융·복합 방향을 모색한 것이다.

광주상공회의소는 최근 광주시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남서울대학교 등 정부와 학계, 기업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지역 4차 산업혁명 대응 커뮤니티 간담회'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광주상의는 광주시·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아 광주지역 고용혁신 프로젝트의 하나로 '4차 산업혁명 대응 혁신성장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4차 산업혁명 대응 현황 및 정책과제 조사, 신기술 융·복합 집단 멘토링 세미나, 신산업 도입 집중 컨설팅, R&D(연구개발) 서포터즈 지원 사업 등을 진행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 내 공기질을 측정해 데이터를 지도화하는 로드맵 개발, 철강 입·출고와 관련한 RFID(무선인식) 솔루션 개발, AI(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낙상을 방지하는 신제품 개발 등 융·복합 산업에 대한 성과 발표와 추가 지원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이 지역 내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도록 소통하고, 교류하며,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컨설팅에 참여한 신기술 전문가는 "광주에는 양질의 제품과 탄탄한 기술력을 지닌 강소기업들이 많아 산업·기업 간 융·복합을 통해 선진화된 기술을 연결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며 "지자체와 기업지원기관들의 가교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정부, 16일 현장점검

정부가 오는 16일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7월 1차로 지정된 전남 등 규제자유특구 7곳에 대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술 실증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특구 옴부즈맨,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은 14~17일까지 특구 지정 시 부여 조건의 이행 여부,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여부, 안전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전남 e-모빌리티 자유특구에 대한 현장점검은 오는 16일 실시한다.

중기부는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된 미흡 사항은 보완하도록 하고, 다음 달 2차 점검을 통해 조치가 잘 이뤄졌는지 재점검할 계획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

광주시 전국기능경기대회 금2, 은4, 동4개 획득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최근 부산에서 열린 제54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광주시 대표들이 금 2, 은 4, 동 4개 등 메달 10개와 장려상 18개를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황교건(금파공고 3년) 선수가 제과 직종에서, 정예지(중앙미용직업전문학교) 선수는 헤어디자인 직종에서 금빛 축포를 터트렸다. 광주시는 이번 대회에 32개 직종, 94명의 선수를 파견했다.

〈산업인력공단 광주본부 제공〉

중기 근로자, 주택특별공급 신청 쉬워진다

장기근속자 우선 공급
중기부, 온라인 서비스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주택특별공급 신청이 편리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종합사이트(http://sanhakin.mss.go.kr)에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메뉴를 신설해 14일부터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메뉴 신설로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특별공급' 신청을 원하는 근로자들은 온라인으로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주택특별공급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메뉴 내에서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모집공고가 주택 소재지 관할 중기청 홈페이지에만 제공돼 타 지역 근로자들이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특별공급'은 주거 안정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제도로, 2004년부터 시행됐다.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무주택가구 근로자에게 특별공급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주택특별공급을 신청하기 위해선 지방중기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이용해야 했지만 이번 메뉴 신설로 불편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로또복권 (제880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7	17	19	23	24	25	38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2,837,810,465	7
2	5개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63,668,825	52
3	5개 숫자일치	1,419,717	2,332
4	4개 숫자일치	50,000	114,994
5	3개 숫자일치	5,000	1,939,064

"한전공대 전기공사 분리 발주해야"

전기공사협 전남도회 건의
"저가 하도급 예방·고용 창출"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남도회는 13일 "한전공대 건립 사업과 관련해 전기공사는 분리 발주해달라"고 한전에 건의했다. 대·중소기업 상생과 중소기업 보호 육성, 국가 전력산업 발전을 위해 분리발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기공사협회 전남도회는 한전 사장에게 보낸 건의문에서 "대형공사를 일괄·기술 제안 입찰 형태로 발주하는 것은 전문 전기공사기업의 입찰 참여 기회를 박탈해 경쟁력 저하를 초래한다"며 "대형건설업체가 공사를 일괄 수주하면 저가 하도급 문제가 야기돼 부실시공, 하도급 업체 경영 악화와 도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전남도회는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11조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 함으로써 발주처는 공사비용을 절감하고, 시공자는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고 국가 차원에서는 부가가치 증대와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전공대는 나주시 부영CC 부지 120만㎡에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내년 초 착공 예정이다. 학생은 1000여명, 교수는 약 100명 규모가 될 전망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지역건축사 협력 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

청년건축사 참여 가점

국토교통부는 한국감정원과 함께 '지역건축사 협력 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20가구 미만) 집주인들이 주민합의체(2인 이상)를 구성, 스스로 노후 주택가를 개량 또는 새로 건설하는 방식이다. 강제적 주택정비 사업에 따른 '전면 철거'의 부작용과 지역공동체 와해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2018년 2월 도입됐다.

이번 공모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주민합의체가 지역건축사와 협력해 '자율주택정비사업 설계안'을 제출하면, 6개 우수작을 뽑아 각 1000만원씩 설계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공모 기간은 14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약 한 달이고, 특히 청년 건축사가 참여하면 선정 과정에서 가점을 받는다.

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공모전을 통해 획일적 주택 디자인을 넘어 다양하고 아름다운 주택 디자인이 많이 선보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